



## 민주당 대전시당, 이장우 시장 1년 평가토론회 개최

### “협치와 방향 재설정, 장기적 지역발전 밑그림 그려야”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시정에 서 필요한 것은 토론을 통한 협치와 방향 재설정과 장기적인 지역 발전체제를 구축하는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1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이장우 대전시장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금 흥섭 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을 ‘대전의 밸전을 위해서는 간등과 증오의 정치가 아닌 토론과 협력, 협치의 정치, 거버넌스 형 정치가 시정 운영의 중심이 돼야한다’며 “지방자치 30년간 전임시장들이 만들어 놓은 협치의 문화가 필요하다. 협치라는 기본적인 정치적 예의가 있어야 대전의 밸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시당 민생안정 TF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금 원장은 “대전의 경제는 낮은 제조업 비율, 서비스업 80%, 자본 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이 특

징”이라며 “하지만 올해 대전시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399억 원이 줄었고, 과학도시 대전이라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예산도 전년 80억 원에서 올해 58억 원으로 감소했다”는 말로 대전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전임시장 치적을 지우려다 대전의 색깔마저 지웠다’는 말로 이장우 시장 1년을 평가했다.

발제에 나선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중앙언론 보도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 시정 1년 성과와 한계를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난 1년 검색 트렌드를 보면 실내 마스크 해제, 취임식, 현대아울렛 화재, 인사 문제, 선거법 위반, 외곽도로와 방시청, 한국타이어 화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빅데이터에 따르면, 단기적이고 이벤트성에 기까운 시정 운영, 인사문제와 화재 사건 등 부정적 이미지, 시민 의견이 없는

고립된 시정운영 등은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정 이전 등 방산 도시 기반 마련은 성과로 꼽은 권 교수는 “코로나 3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분석과 관심 등 장기적인 지역발전 구축체제를 구축하는 그림이 전혀 없다”며 “장기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방위사업청이 온다고 해서 대전의 경제적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고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며 “저출생, 양극화, 수도권과의 격차 등 대전의 위기가 서서히 끊는 불 속의 개구리처럼 진행되고 있다. 장밋빛 프로젝트를 남발하기보단 도시의 근본적 역량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이 삶이 변한 게 없다. 되는 것은 하니도 없”라고 지적했다.

이금선 시의원은 “이장우 시장은 추진력이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방안 없는 현수막 정치에 치중했다”며 “시의회가 국민의 힘 18명, 민주당 4명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이장우 시장 1년은 무능과 전임자 지우기 표적감사 등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 리틀 윤석열, 대전의 윤석열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광영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공약(約約) ▲뻥튀기 ▲낙하산 ▲업자 의원 등 네 단어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대전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대전의 세입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데, 민선 8기 들어 토목 사업은 추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복기자



#### 천안시의회, 개원 1주년 맞이 의원직원 단합대회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지난 4월 제9대 천안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았다. 1주년 개원기념식을 마친 천안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의 천안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통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11일 롯데시네마 천안불당점에서 천안시의회 첫 홍보대사인 오대환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악마들’ 대박 흥행을 응원하였다. 제9대 천안시의회는 22년 7월 4일 개원한 지 1년을 맞았으며 오는 17일 제261회 임시회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서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안건 심의 예정



사정신으로 지방의정과 충남발전을 위하여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남도지사의 회장장(의회회장 정도희)에서 충남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등 인건 심의·의결이다. 인건 종류로는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기타 4건 등 총 12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미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생생교육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이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사업계획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해 시민의 열망과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경한기자

## 김명숙 의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청양이 최적지”

“생태자연도 1위, 희귀·멸종식물 2만9천개체 보존·관리된 청양이 가장 적합” 강조



연·지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청양군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고, 도내 도립공원 전체 면적의 41%를 차지하는 칠갑산이 있어 ‘충남의 알프스’로 불릴 만큼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31년간 운영되며 88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자원을 보유한 고운식물원이 있어 산림자원연구소가 이전할 경우 조성 기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할 수 있고, 도민에게 산림문화복지증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 어디서든 1시간 이내로 산림자원연구소에 도착할 수 있으며 논산·서천, 당진·대전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곳의 나들목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며 “도민의 편리성을 생각할 때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김정환기자

#### 박영순 의원, 시민단체 공약

#### 이행률 0% 발표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11일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발표한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이하 대전 참여연대)는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을 발표했다. 조시결과에 따르면 박영순 의원은 32개의 공약 중 이행완료 0건, 이행 중 15건, 미이행 16건으로 분류했으며 대전혁신도시 지정,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기 착공, 권역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총선 공약을 추진예정→추진 중(일부 완료 포함)→완료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총 공약 32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29건(일부완료 4건), 추진예정 2건으로 90% 이상의 공약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대덕구는 혁신도시와 드론특구로 지정을 받은 상황이며, 충청권 광역철도 1,2단계사업, 혁신IC연결로로 건설사업, 경부고속도로 선로 지하화, 신탄진후계소 하이패스IC, 비래동~와동~신탄진동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사업 등 숙원사업들이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되었거나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황

이정복기자



국민의 힘 충남도당은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충남도당 위원장 선출 논의를 위해 충남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에는 공주부여 청양정진석 의원, 아산갑 이명수 의원, 서산태안 성일종의원, 홍성 예산 홍문표의원, 천안갑 조미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문표<사진> 의원은 “내년

총선은 충청권의 아들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비로미터가 되는 만큼 충청권에서 암승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죽기 살기로 뛰어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당은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 공고를 거쳐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도당 운영위원회,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 이철수 의원, 안전취약계층 위한 화재안전망 강화 주문

총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 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초기 소화장치 및 정기적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

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소화장치가 부실하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소화장치 미작동 및 부재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여 지방 의회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원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대표로하는 연구모임은 홍원표 부의장(자선기구·국민의힘), 박종수 행정복지위원장(나선거구·국민의힘),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예산군의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 도출을 목표로 활동한다.

특히, 정책 개발 연구 용역을 통

해 관내 귀농인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와 타시·군 사례 분석을 통한 귀농인의 실태와 현장의 견의사항을 파악하여 추진중인 정책의 점검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 제안도 계획하고 있다.

심 의원은 “귀농·귀촌 정책은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이번 연구모임을 통하여 군의 귀농·귀농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풀뿌리 민주주의 연구회’가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연구회가 주최하고 여성용 의원이 주관하였으며 연구단체 회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연구회가 연구해야 할 용역 과제 설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철수 의원은 “이번 대회 조원희 의원은 지도

3D 입체화 기술을 활용한 안전도시 구축’ 정책토론회

심원예·박종수·이길원·홍원표 의원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 위한 연구모임’ 발족



화 강좌실에서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의원 연구모임은 의원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주민 등을 포함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지역내 현안 등 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통

하는 정책토론회

daejeontoday.com



#### 대전시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미래 첨단 과학 안전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은 12일 의회 소통실에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안전도시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키아스트 장호종 교수는 대전 내 안전서비스,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도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략과 효과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가 실현되는 차세대 Action City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원희 의원은 지도 3D 입체화 기술 등 디지털트윈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와 기술을

활용하는 대전시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또한 토론회인 키아스트 선임 연구원이 차세대 바사라는 그동안 대전시에서 안전관련 추진 노력들에 있었으나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며, 파편화된 서비스들이 연계되어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디지털트윈’ 가상 공간을 만들어 안전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 박선우 차장은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최적의 도시이며,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원희 의원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시민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이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파악되도록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담부서 설치, 조례를 통한 제도 마련,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지원체계 등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이스트 장호종 교수의 ‘대전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운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박선우 차장, 카이스트 선임연구원 이채석 박사, 대전시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장, 전략사업추진실 실증디지털과장,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장,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장,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장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송활섭 의원, 이금선 의원, 김민숙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정환기자

# “경제자족기능 확충, 정주 여건 개선… 품격 있는 삶 만들 터”

## 최민호 세종시장 취임 1주년 인터뷰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주야, 휴일 가리지 않고 일했다. 시정 4기 2년차는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구상한 핵심 정책 · 사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최근 대전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1년간의 시정을 이끈 소감과 앞으로의 세종시정 방향을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앞으로 경제자족기능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 기반 확충 등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해 시민들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 ▲ 지난 1년간 시정을 이끈 소감은?

지난 1년간 세종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평일 ·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일하다 보니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497억(설계비) 147억+토지매입비 350억과 대통령집무실 건립비(3억)가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당대표,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중앙부처 장관 등을 만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촉구하고 협의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동시에 행정기능만으로는 도시 성장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고자 지속경제 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제 시정 4기 2년차는 자족경제 기능을 꾸준히 확충하는 동시에 준비된 미래전략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시기이다. 지난 1년간 세종의 미래를 위해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구상한 핵심 정책 · 사업을 실천해 나가겠다.

▲ 취임 후 첫 1년이지만 성과도 많았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가 눈에 띠는데, 간략히 소개해주시다면.

지난 1년간 시민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문화 · 체육, 지역경제, 교통, 보건 ·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자족경제 기반을 닦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KT&G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27개사와 1조 4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3,7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하였다. 올해 국비 중 우리 시 관련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488억원(3.6%) 증액된 1조 3,874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이는 연내 최대 규모이다. 보통교부세 역시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1,257억 원을 확보하여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 다른 분야에서의 성과도 적지 않다. 특히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오신 노력을 설명해주시다면.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성과로는 후보 시절 공약한 부동산 3종규제가 6년 만인 지난해 9월 전면 해제되었다. 상가 공실해소를 위해 허용용도 완화를 추진, 지구단위계획 변경(‘22.10 월), BRT역세권과 금강 수변상가 입주기능 업종이 확대됐다.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이자 시민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최초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신설이 확정되었고, ‘22.10.26, 택시 증차,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24시간 소이응급 진료체계를 구축(‘23.4월)하고, 장애인 구강전문치료기관 설치를 확정(‘23.4월)하였다.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건강관리 · 디지털 역량강화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지난 1년 시정 추진을 통해 아쉬운 점도 있을텐데.

먼저, 가장 아쉬운 대목은 국회 규칙 제정 절차가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야 합치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수월하게 규칙이 제정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고, 정부예산에도 반영된 만큼 이론 시일 내 처리되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5월 중 설립하기로 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이 늦어진다는 점도 어렵게 생각한다. 계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조직위원회 사무처 소재지\*를 세종시 어진동으로 확정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상생과 협력의 힘으로 유치에 성공한 만큼, 문체부 · 대한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역량을 집결하겠다.

▲ 취임 2년차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취임 2년차에는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25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세종시 전체를 도시정원화 + 공중 · 지상 · 물빛 3대 요소를 특화하여 대한민국 1호 정원도시로 세계에 선보일 것이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폐막식, 육상경기 등)을 조속히 건립하고, 5생활권 메인 선수촌 조성 등에 힘쓸 계획이다.

우리시는 대통령집무실,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수요 급증할 것 지명한 상황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과 KTX 세종역 신설을 통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광역 철도망으로 시도하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25년) 등 대중교통 혁신을 위하여, 버스노선 신설 · 개편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

▲ 2025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성공시키겠다는 각오가 남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대전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1년간 성과와 시정 4기 2년차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다르다. 국제 규모의 정원도시 박람회를 추진하시고자 하시는 배경이 무언가?

우리시는 52%의 높은 녹지율과 세계적 수준의 3대 특화정원\*을 보유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정원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을 이 풍부하다.

정원 관련 묵부, 화훼 산업 기반도 풍부해 도시 속에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원 속에 도시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 정도이다. 이에 매기 이벤트를 통해 정원관광 기반이 풍부한 세종시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최초의 유일한 정원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박람회 개최 시 세종시 정원산업 발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복원 등 다방면의 성과가 전망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도시 전체가 정원인 세종이 관광명소로 거듭남으로써 중부권 최대 정원 관광도시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람회를 계기로, 화훼 등 정원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호텔 건립과 컨벤션 산업 등 관련된 산업 부양도 기대된다.

▲ 2025년 국제 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현재 준비상황은 어떤가?

올해 7월까지 박람회 기본구상을 마련, 하반기까지 기본 · 실행계획 동시 수립을 통해 국제 행사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람회 전담 조직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조직위 체계로 전환을 준비하여 ‘24년 초에 조직위를 출범 · 운영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 국가 유치, 국제 홍보, 정부 설득 자료 등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CIB 평가를 활용하여 국제적 인증을 추진 중이다. 국제적 인증과 협력을 바탕으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1호 정원도시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기대도 크다. 세종에서는 이번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번 대회 유치로 세종은 또 다른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시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소중한 기회이다.

이번 대회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2조 7,289억 원이며, 취업 유발 효과 또한 1만 499명, 고용 효과 7,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시에서 육상 · 탁구 · 수구 및 폐회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대평동 일원에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 대비해 종합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27년 상반기 원공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설계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 개최로 충청인들이 자긍심과 유대감을 고취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

▲ 올봄 시내버스 무료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다. 전국 각 지자체가 요금 지원을 절회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에 대한 무료화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어디에 있나?

우리시 특성상 인근 지자체(대전 · 청주 · 공주 등) 출퇴근 수요가 많아 전체 통행 중 광역통행 비중이 높고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높다. 이에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어 도로 용량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향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및 5 · 6 생활권 개발 등 장래 여건 변화 및 지속적 인구 증가로 도심지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시는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우리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하고자 한다.

▲ KTX 세종역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대한민국 행정 수도 세종에 KTX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설치 의지 역시 확고하다. 지금 당장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연전가는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 정차 등 세종시 KTX 추진을 위해 자체 티당성 용역(1.8억)을 진행 중이며 10월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해 간척지 데이터와 서명운동으로 모인 시민 열원을 10월경 정부에 전달하여 정부가 실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회 규칙 제정이 늦어지면서 국회 세종의사당도 지지부

진하다. 또 총선용 카드로 밀리는 것 아니라는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시민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시의회 등 지역 전체의 조당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지역구 의원 등을 만나 국회 규칙(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를 만나 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홍성국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위원)과도 힘을 모아 다시 한번 1인 시위를 통하여 시민의 열원과 의지를 표명하였다.

▲ 최근 당선 1년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개헌제안의 출발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마다 보니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신적인 현안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세종시를 건설할 당시의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확정되는 등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굴레를 벗고,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면서 ‘경제 시장’에서 시작하여 ‘문화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는 시민들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미이다.

첫 1년은 행정수도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실현할 계획을 다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앞으로 경제자족기능 확충, 정주여건 개선, 문화체육 기반 확충 등 실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정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대담=이정복 편집부국장 · 정리=김태선 기자

●정정●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행사



박희조 동구청  
장 = 13일 오  
후 7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5기  
동구 청년 네  
트워크 발대식  
행사에 참석.

제25회 보문미술대전 개막식



김광신 충주청  
장 = 13일 오  
후 4시 대전중  
구문화원 뿐  
리홀에서 열  
리는 '제25회  
보문미술대전  
개막식' 참석.

서구노인지회 경로당 회장단 회의



서철모 서구청  
장 = 13일 오  
전 10시 30분  
서구노인지회  
에서 열리는  
서구노인지회  
경로당 회장단 회의에 참석.

목민관클럽 제4차 정기포럼



정용래 유성구  
청장 = 13일  
오후 2시 전  
남 신안군에  
서 열리는 민  
선8기 목민관  
클럽 제4차 정기포럼에 참석.

역량강화 교육



최종규 대덕구  
청장 = 13일  
오후 3시 중리  
사회 복지 관  
주민공유공간  
에서 열리는  
2023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

## 어린이 물놀이장 25일 개장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본격적인  
부여위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내달 13  
일까지 대덕연구단지운동장 등 권역  
별 주요공원 6개소에서 어린이 물놀이  
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놀이장에는 에어풀장과 워터슬라  
이드 등의 물놀이시설과 쉼터, 사워시  
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오전 11  
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 매  
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구는 각 물놀이장에 특성에 맞는 테  
마시설을 설치하고, 워터워즈, 물총놀  
이, 버블파티, 워터싸커 등의 체험형 프  
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물놀이장 최종 개장 직전에 안  
전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 설치 상태,  
안전관리 대책 등 물놀이장 전반에 걸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개장 이후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일 수질과 시설물을 점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 물놀이  
장이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차별화된  
팝업형 워터파크로 자리매김했다"며,  
"어린이들에게 도심 속 시원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시즌2로 돌아왔다

市, 매주 목요일 '라이브대장' 플랫폼 통해 방송... 12월까지 60개 업체 참여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주진 중인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가 시즌2 방송을 시작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시작하고, 12월에는 대전형 라이브커머스 전용 플랫폼(라이브대장(전)장터)을 구축·운영해 왔다. 올해 4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총 52회 방송을 진행해 1억 9200만 원의 누적 매출액을 달성했다.

지난 시범운영을 통해 방송 참여 소상공인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특별히 보여주었던 만큼 올해는 그동안의 방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아진 모습의 라이브대장 시즌2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2에는 참여 소상공인을 60개 업체로 확대했으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을 정례화해 진행한다.

또한, 현장의 생생함을 담은 라이브방송 진행, 테마별 다양한 기획운영 등을 통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7월 13일 오후 3시 선화동 주꾸미와 신선만 견과류 선물세트 판매로 첫 방송을 시작하는 라이브대장 시즌2는 우선 지난 5월 1차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대전시는 추가로 라이브커머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며, 참여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보이스피싱 막은 기양동새마을금고 괴민희 과장, 대전동부경찰  
서장 감시장수여

기양동새마을금고(이사장 원용석) 괴민희 과장은 지난 4일 고객의 경찰사칭 보이스피싱예방을 통해 고객의 재산을 지킨 공로로 인천수 대전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12일 감사장과 상금을 수여 받았다. 인천수 서장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막은 괴민희 과장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감사장과 기념품, 상금을 전달했다. 기양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막아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폐렴적정성평가' 100점 만점 1등급

## 기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기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강진용 신부)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5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역사회 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환자가 10건 이상인 전국 4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일상 생활 중 발생해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을 의미한다.

평가 결과 기톨릭대 대전성모 병원은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 말·객담배양 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 진료과정 부분 6개 지표 모두에서 100점 만점 평균점수 87.6점)을 받았다.

강진용 병원장은 "폐렴은 매우 흔한 질환임과 동시에 노령환자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서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참여자 모집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업무역량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종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대덕물빛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대덕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새로운 관광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10일 협업부서 및 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덕물빛축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교육과정은 8월부터 9월 두 달 간 총 8회차 과정으로, 주제별 전문 강사를 통한 리더십 스트레스와 갈등관리 방안과 자금조달, 공공구매, 나리장터 실무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서구 사회적경제협의체(☎ 042-488-1800) 또는 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2-288-2173)로 문의하면 된다.



## 7월 정기분 재산세 1,517억 원 부과

## 전년 동기 대비 116억(△7.1%) 감소... 市, 납부기한 31일까지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5만 6934건, 1,517억 원을 부과했다.

세별로는 재산세 1,09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12억 원, 지방 교육세 112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716억 원, 건축물 분 801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16억 원(7.1%) 감소했다. 이 중 주택 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68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48억 원이 감소했다.

시는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44억 원(6.4%↓), 서구 469억 원(7.3%↓), 중구 176억 원(10.3%↓), 동구 16억 원(6.6%↓), 대덕

구 164억 원(6.2%↓)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차등화 및 상가 용도지수 조정으로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여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더욱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 까지며,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 042-720-9000)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 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태선 기자

## 동구, '응급상황 대비' 영유아 부모 대상 안전교육 진행

## 공감토크 3회차서 요청된 사항으로 필수 안전교육 포함

서 보유 중인 영유아가 쓰러졌을 때 원장과 보유 교직원이 재빠른 응급처치로 급박한 위기를 넘겼던 사례가 있어 더욱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안전한 동구의 보유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영유아 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앞으로도 공감토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재차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태선 기자

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영유아 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앞으로도 공감토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재차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16억 원(7.1%) 감소했다. 이 중 주택 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68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48억 원이 감소했다.

시는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44억 원(6.4%↓), 서구 469억 원(7.3%↓), 중구 176억 원(10.3%↓), 동구 16억 원(6.6%↓), 대덕

## 숲에서 일하는 직업, 나에게 맞을까?

국립대전숲체원, 찾아가는 진로교육 '꿈꾸는 숲' 운영



종학생 2명 중 1명은 꿈이나 희망직업이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 국립대전숲체원(원장 이영록)은 중학생 대상 숲에서 일하는 직업을 소개하고 성격유형과 관심사에 따라 직업을 매칭하는 '산림 분야 진로교육, 꿈꾸는 숲'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 산림관련 직업 탐구 ▲ 성격유형, 관심사 등에 따른 산림분야 진로 매칭 ▲ 현

직자 질의응답 등이다.

지난 10일 대전시 관내 중학생 39명이 참여했으며, 14일, 17일 종학생 127명이 추가 참여하게 된다.

'꿈꾸는 숲'의 운영대상은 지역 학교와 이동·청소년 활동기관으로, 꿈길(www.goomgimgil.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영록 원장은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미래를 설계하고 능동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정정●●●

충남 수산인 한마음대회



김태 흠 충남  
도지사= 13일  
오전 10시 30  
분 서천에서  
열리는 충남  
수산인 한마  
음대회에 참석.

개관식



김지철 충남  
도교육감= 13  
일 오후 2시  
30분 아산스  
마트팩토리마  
이스터고등학  
교를 방문하여 아산스마트팩토  
리マイ스터고 기숙사, 실습동 개  
관식에 참석.

추진점검보고회



최재구 예산군  
수= 13일 오  
후 4시 대회의  
실에서 열리  
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2분  
기 추진점검보고회에 참석.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방문



이용록 홍성군  
수= 13일 오  
전 9시 홍주문  
화 회관에 서  
열리는 노인  
일자리 및 사  
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에  
참석, 오전 10시 서부면·갈산면  
6개소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방  
문에 참석.

## 폭우피해 ZERO 도전 한다

“산불 피해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폭우에 취약하니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명 피해와 인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대비해 주십시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2일 이용록 홍성군수는 서부면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공무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최근 지구 운남화로 인한 엘 니뇨현상으로 전국 곳곳에 10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는 만큼 폭우피해 ZERO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불로 지반이 약해진 피해현장을 찾아 계류보조판과 사방댐, 산지사방 응급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에도 산불 피해지역 토사유출이 발생 방지와 산불 피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폭우 피해 ZERO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대형 건설 공사현장, 산사태 위험지역, 하상주차장 등 106개소에 대하여 우기대비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과 봉괴 우려 구간 안전시설 설치 여부, 하상주차장 진입통제 시설 및 방송장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정환 기자

## 오는 19일부터 B2노선 133.5회 · B4노선 62회로 증회… 배차간격도 단축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9일부터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BRT)인 B2노선과 B4노선을 증회·증차 운행한다.

이번 증회·증차는 출퇴근시간 대 훈장도 저감,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강화 등 시민들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B2노선(반석역 ~ 세종터미널 ~

## “지친 몸·마음 ‘치유 숲’에서 회복하세요”

충남도, 숲 체험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도민 누구나 무료 참여 가능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스트레스 등을 겪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해 시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도민 마음 치유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대응 인력 심리 지원 프로그램 숲 체험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연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마음 치유를 주제로 전 도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 치유프로그램 참여 후 정상군 비율은 60%에서 70%로 증가해 우울 위험군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고 스트레스 고위험군도 62%에서 48%로 14% 줄어들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 회복 도움 여부’에 대해 참여자 중 92%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고 ‘프로그램 전

반에 대한 만족도 여부’에도 95%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도는 올해 도민 심리 지원 치유 프로그램의 협업 기관을 1곳 더 늘려 기존 국립예산치유의숲,

광주수수네숲, 서천치유의숲 3곳에 더해 대학산치유의숲을 6월부터 추가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숲길 걷기 명상 △아로마 테라피 △꽃자 테라피 △싱잉볼 명상 △무용 동작 △이야기 치료 등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충남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단체 신청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자살예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향상하고 일상 생활 속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해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의면-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업무협약 체결

복지취약계층 발굴 등 나눔문화 확산



세종시 전의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공동위원장 박원용·윤혜란)가 지난 11일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이성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 연계 ▲복지사각 취약계층 공동 발굴 및 지원 ▲지역사회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복지자원 등으로 복지자원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혜란 민간위원장은 “전의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해 주신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이성호 회장과 임직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관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예산군·충남도·씨에스아이엠(주), 합동 투자협약(MOU) 체결

## 이차전지 소재·디스플레이 재료 등 생산… 높은 성장 기대

예산군은 지난 1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기업인 씨에스아이엠(주), 충남도와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재구 군수와 김태희 충남도지사, 씨에스아이엠(주) 류현정 대표이사를 비롯해 8개 시·군 1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진행됐다.

예산군은 해당 일반 산업 단지에 입주한 씨에스아이엠(주)는 2018년에 예산군에서 첫발을 뗀 기업으로 이차전지 소재와 디스플레이 재료, 회장품 원료, 의약품 중간체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20년도 61억원 2021년도 100억원, 2022년도에는 20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를 모은다.

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씨에스아이엠(주)가 추진하는 예산 해당 일반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관련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은 지역사회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친환경 기업 문화 조성과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및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군에서 첫발을 놓은 기업이 성장해 다시금 지역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천해 주신 류현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예산 = 박제화 기자

린다”며 “군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 세종시, 2023년 재산세 약 19만 건 584억 원 부과

## 전년 동기대비 11.7% 감소… 이달 31일까지 납부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84억 원(약 19만 건)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공동주택, 개별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된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

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 송장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자가 납부기한내 납부하면 고지서 1당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지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

정한 경우에는 고지서 1당당 1,6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선 기자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의병 양성소 체험 ▲실감형 사운드 콘텐츠로 흥주읍성을 탐방하는 미션 사운드

▲흥주성 출입패 만들기 ▲흥주의 병 및 전통한복 입기 체험 ▲흥화문을 지키는 수문장 교대식 퍼포먼스 ▲흥주성 전투를 각색한 관

객 참여형 공연 ‘흥주읍성을 지켜라’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된다.

한편 충남 역사·문화·생태 융합형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은 충남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고 확산시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관광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용록 군수는 “홍성 제1경인 흥주읍성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건환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홍주읍성에서 일어난 많은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및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흥주읍성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흥주읍성’ 문화콘텐츠로 ‘시동’

## 오는 22일 ‘역사의 움직임, 시크릿 흥주읍성’ 첫걸음

홍성군(군수 이용록)과 홍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건환)은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홍주읍성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인 ‘역사의 움직임 시크릿 흥주읍성’의 화려한 막을 연다고 밝혔다.

충남 역사·문화·생태 융합형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사의 움직임, 시크릿 흥주읍성을 탐방하는 미션 사운드와 다양한 체험을 접목해 흥주읍성을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주변

한편 역사·문화·생태 융합형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은 충남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고 확산시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관광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역사·문화·생태 융합형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은 충남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고 확산시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관광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용록 군수는 “홍성 제1경인 흥주읍성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건환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홍주읍성에서 일어난 많은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및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흥주읍성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세종시, 광역간선급행버스 B2·B4노선 증차·증회

## 오는 19일부터 B2노선 133.5회 · B4노선 62회로 증회… 배차간격도 단축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9일부터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BRT)인 B2노선과 B4노선을 증회·증차 운행한다.

이번 증회·증차는 출퇴근시간 대 훈장도 저감,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강화 등 시민들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B2노선(반석역 ~ 세종터미널 ~

오송역)은 현재 버스 17대가 122회를 운행 중인데, 19일부터는 총 133.5회까지 운행횟수를 215회로 증회하며, 배차간격은 기존 6~30분에서 4~20분으로 단축된다.

B4노선(반석역~세종시청~오송역)은 현재 버스 5대가 38회를 운행 중으로, 앞으로는 3대를 증차해 운행횟수를 62회까지 증회한다.

광고문의  
(042)538-3030

## 연서면 수해피해 복구 지원

## 세종시 자율방재단

세종시 자율방재단(회장 양길수)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지진 후우로 수해를 입은 연서면을 찾아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연서면에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누적강수량 약 70mm, 시간당 최대 41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유출 등 20여건의 피해가 발생해 최대 15명이 긴급 출동해 막힌 수로를 뚫

우/리/동/네

# 천안시,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천안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하는

## 생활지원사 역량강화 교육

천안시는 12일 시청 봉서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충남 광역 지원기관과 연합해 수행기관 종사자 214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돌봄 대상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치매증상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제공방법, 생활지원사의 직업윤리 및 서비스 미인드 등을 다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 등 어르신들의 인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천안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3,137명의 홀로 삶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노인의 건강 상태나 욕구에 따라 생활지원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방동, 초복 맞이…흘몸어르신, 결식이동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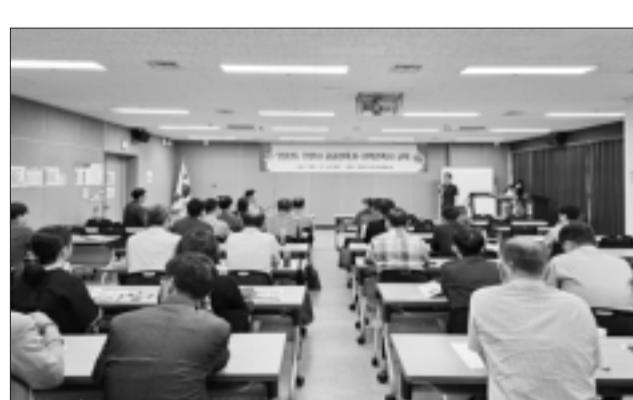
## 취약계층에 삼계탕 등 지원

천안시 신방동 행복지원단(단장 신동미)이 지난 11일 흘몸어르신과 결식이동 등 취약계층 가정에 삼계탕과 오이김치 30인분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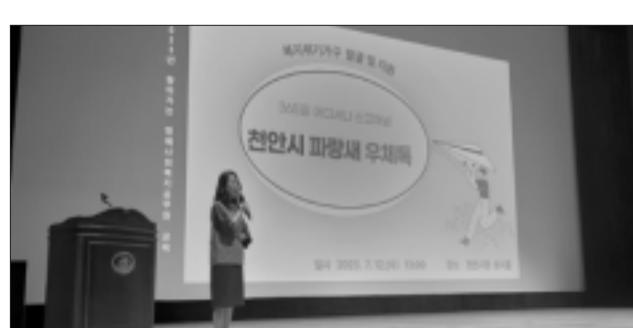
이날 행복기운지원단원 20여 명은 직접 조리한 삼계탕을 전달하며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에게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이번 삼계탕 나눔엔 광명기획 전해천 대표와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정근국 씨가 인삼·오이·찹쌀 등을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신동미 단장은 “흘몸어르신 가정을 일일이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니 안심이 된다”며 “울해는 어느 때 보다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삼계탕을 드시고 무더위를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환 신방동장은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해 주신 행복기운지원단에게 감사를 드리며, 취약계층 안전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2023년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개최 천안시는 12일 천안축구센터 중세미나실에서 공공건축 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제2기 천안시 공공건축기와 지역건축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 기획업무, 설계공모제도 이해 등 공공건축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도와 행정 절차를 공유했다.



천안시, 찾아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차 교육 실시 천안시는 12일 시청 봉서홀에서 3개소 복지관 소속 독거노인 담당 생활지원사 250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기구 발굴·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 저출산 극복 사업 수행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천안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의 날 제정·취지를 알리고, 인구문제 대응과 인구정책에 기여한 혁신이 큰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천안시는 저출산·고령화의 국가적 현안과 문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 극복 사업을 적극 수행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및 출산부담 경감, 출산한 지역돌봄 체계 구축 및 보육지원 강화, 저출

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일·가정 균형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왔다.

또 '일자리가 넘치고 주거와 돌봄 걱정이 없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구현'을 목표로 4대

분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자리 강화 ▲생활환경개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아래 139개 인구정책 과제를 폭넓게 선정해 집중 추진해 왔다.

특히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추진,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정적 정착

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개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산업기반 확충과 미래 신성장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힘쓰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는 일자리, 주거, 양육 천화적 환경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과 신산업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유연하고 포용적인 외국인 정책 등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 정

### 월례회의



박상돈 천안시장  
= 13일 낮 12시 승지원에서 열리는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 천안시, 데이터 기반 시각화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천안시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행정업무의 혁신과 시장 발전에 기여할 청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천안시 데이터 기반 시각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천안시 행정업무 개선 아이디어 기획 ▲다양한 데이터로 표현하는 천안시의 현재 모습 2가지이다. 천안시 기업 현황 분석, 천안시 인구 변화에 따른 교통 이용 현황 분석 등 주제에 맞춰 세부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관련 내용을 시각화하면 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최대 4인)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과제 접수는 8월 31일까지 공모전 참가신청 양식과 분석 결과물을 아래 일(data.support@kodata.co.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면 평가와 2차 본선 발표 심사로 진행된다. 평가기준(국제적 학술성, 창의성, 기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한 후 올해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상금은 총 1,200만 원이다. 대상 1개 팀에게는 천안시장 표창과 함께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개 팀에게 250만 원, 우수상 3개 팀에게 각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www.cheonan.go.kr)와 한국평가데이터(www.kodata.c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 천안시복지재단, 쌍용3동

### ‘행복천사 31호’ 달성’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정지표)이 12일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천사 마을공동체 만들기’ 3차 기업 행사를 진행했다.

쌍용3동 행복천사 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 소상공인, 천안시 복지재단이 나눔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적 참여 프로젝트이다.

시는 행복천사에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천안시복지재단의 기부캠페인으로 매월 3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날 3차 기업 행사를 통해 쌍용3동 주민자치회(회장 권관희), 공부방원장 배은희, 주하우스토리(대표 정재환), 주무궁화엔비(대표 설진영), 선영재 마을금고(이사장 윤승현), 지로스터전문바리스타학원(대표 주찬형) 등 기관·단체 총 8곳이 있다.

쌍용3동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능동적인 참여로 행복천사 기업·단체가 당초 목표인 20호를 초과한 31호를 달성하면서 행복천사 기업 목표를 50호로 상향했다.

전경애 쌍용3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품기 위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행복천사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쌍용3동 주민 모두가 나눔으로 행복하고, 이웃의 정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8 태동빌딩 7층

## ‘2023 천안홍대용과학관 달빛체험교실’ 26~27일 운영

### 여름방학 맞아 망원경으로 달 표면 관측 등

천안홍대용과학관(관장 이종택)은 여름방학을 맞아 26~27일 이틀간 ‘2023 천안홍대용과학관 달빛체험교실’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달빛체험교실’은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관측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된다. 이와 함께 천체관측 유튜버 ‘미드나잇 천체관측’의 특별 강연과 나만의 별자리 티셔츠 만들기 체험, 달 사냥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교실은 일일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천안홍대용과학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당일 기상상태에 따라 관측 프로그램

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홍대용과학관(041-564-0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장 친근한 천체인 달을 주제로 천안홍대용과학관에서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논산소방서, 소형 사다리차 신규 배치·시연회 개최** 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대형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화재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형 사다리차 1대를 신규 배치·운영함에 따라 12일 오전 소방서 앞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산소방서,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 소방안전교육 실시**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11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생활지원사 9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산소방서, 어린이 대상 안전 체험 교육 실시** 서산소방서(서장 김영환)는 12일 관내 '센스빌킨더하우스'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재난 시 대피 및 행동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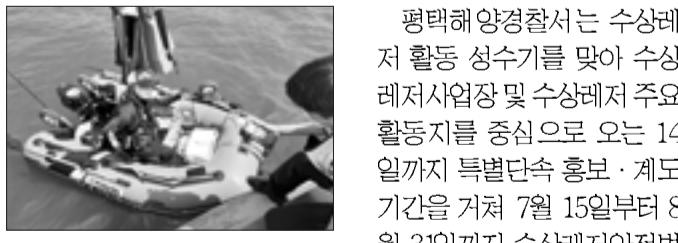
**이산시, 아동학대 예방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신규 위촉** 이산시는 지난 11일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로 새롭게 추천된 당정면 이상 10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국중부발전 지역사회 취약계층 재난안전망 구축 성금 기탁** 한국중부발전 지역사회 취약계층 재난안전망 구축 성금 기탁(총 8700만 원)은 12일 한국중부발전을 방문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성금 8700만 원 기탁 전달식을 가졌다.

## 수상레저 위법행위 특별단속

평택해경,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사항으로는 3대 안전위해사범인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 기구) ▲주취운행(술 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등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기관 경비 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디중이용선박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주요 활동 해역, 예인선 운항 항로, 사고 취약 해상을 중심으로 해상, 육상, 공중에서 일제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동학대 피소 건수, 소송 지원액 모두 역대 최고

## 교권침해 소송 등 87건 중 아동학대 피소 44건… 51%로 '대세 중 대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87건을 심의해 이중 66건에 대해 총 1억 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교권옹호위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교원의 아동학대 피소 건이 '대세 중의 대세'로 확인됐다. 심의에 오른 87건 중 44건(51%)이 교원의 지도, 학폭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역대 최고다.

이동학대 관련 형사 피소 건 중에는 △학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독립 반개설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학폭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기정에서 더 지도해 달라는 교사의 요청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담임의 주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 한 학생 부모가 자녀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을 받으랬다고 이동학대 신고한 사건 등 다양했다. 이를 사건은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교총은 "아이们를 말만 믿거나 교사의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이나도 어떠한 보상도 없고, 그렇다고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없어 교원들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자체 조사, 경찰 수사를 2종으로 받아야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학 등의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어 교육 열정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나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 보조금 1억 6055만원 지원은 교권옹호위의 단일 회차 회의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액으로 기록됐다. 지난 99차 회의(2020.12.18) 때는 35건에 8260만원, 100차(2021.6.29) 때는 22건에 4620만원, 101차(2021.12.14)에는 68건에 1억 1950만원, 102차(2022.7.27)에는 45건에 7760만원, 103차(2022.11.29)에는 35건에 81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계속 허위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사가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건 ▲2020년부터 제자에게 카

통 등 SNS 학교 전화와 훌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차별적인 육설, 인신공격, 명예훼손, 민원, 협박을 당한 교사가 스토킹범죄로 고소한 사건 ▲본인 자녀의 대외 입장 결과 소송마을학교에 게시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금품수수, 학폭은폐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학운위 부위원장에 대해 학교장이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요청 소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소에 대응한 사례가 아니라 무고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원이 적극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전국 교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교권사건이라는 판단이다.

정성국 회장은 "결코 단 한 분의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 보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만큼 꼭 교총에 연락해 안내와 지원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고용부, 전국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 불시 감독

작업자 및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의 석면해체·제거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이 되는 385개소 현장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10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진재물 처리, 진재물의 훌날립 방지 조치 등을 점검해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업체의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부부장은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와 학생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도·감독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강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년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작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체 명단을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함으로써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 시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광고문의  
(042)538-3030



아프리카 탄자니아 중·고등학생 및 교사

## 대전시, 0시 축제 및 휴가철 바가지요금 균절 나섰다

### 자치구 및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 합동점검

대전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0시 축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자치구 및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원도심 지역 시장 및 상점가 총 8곳\*을 중심으로 시·구 공무원 및 물가모니터 요원, 지역 상인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시장 및 축제 기간 행사장 주요 판

매 품목에 대한 가격 점검 및 지도를 진행한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바가지요금 등 비일상적 가격 인상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가격표 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축제 개최 전에 실시하는 사전점검과 축제 기간 중 점검을 통해 바가지요금 등 불

공정거래 관행 균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역 상인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가격표시제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축제 및 휴가철 기간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요금 균절로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단식농성 현장 방문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조한기 서산태안지역위원장 방류 반대 단식농성장 격려차 방문



일부터 옛새째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 방문한 복기왕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다른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볼도하고 있다."며, "이번 조한기 위원장의 투쟁이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의 바다를 지켜낼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접목하고 일본편에서 나뉠 수 역할을 하는 정부와 정부여당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해 주실거라 믿고, 식사하고 건강을 지켜가면서 분노하는 서산·태안 시민과 현장에서 함께 싸우는 위원장님을 뵙길 바란다."고 염려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복기왕 위원장은 이번 단식농성장 방문문 이후 14일 금요일 19:00시 서산에서 진행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촉불문화제에도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 충남대병원 의료시스템 견학

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은 지난 11일 관절염·재활센터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 내부 시설 등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충남대학교 사회공헌센터(센터장 권재열)는 '2019 CNU 글로벌 사회공헌단'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이언스 캠프를 운영했으며 당시 방문 학교였던 탄자니아 산들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로 구성된 총 16명의 인원이 충남대병원의 첨단의료 장비와 우수한 진료 프로세스를 견학하였다"고 말했다. 송병기자



# 대학 10곳 중 4곳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4년제 총장 설문조사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총장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 대상으로 등록금을 꼽았다. 정부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8.6%에 달했다.

9일 교육부 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41.7%(35명)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 고답한 총장도 28.6%(24명) 있었다. 이 외에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답이 22.6%(19명), '인상 계획 없다'는 답은

7.1%(6명)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 등록금이 꼽혔다. 등록금을 가장 시급한 규제 대상으로 꼽은 총장은 50.6%(42명)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비 41%(34명)를 기록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가 넘는 셈이다.

대학가 재정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 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학 총장들은 최근 발표된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결과와 관련해 71.6%(58명)

가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2028학년도로 예고된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해선 자격고시화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51.8%(43명)로 과반수를 넘겼다.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로 대입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 않나는 물음에는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 비판 응답이 45.8%(38명)로 가장 많았다.

이날은 대교협이 6월 1일부터 13일까지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도 발표됐다. 회원대학 193개교 중 138개교가 응한 이 조사에선 대학 총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으로 재정 지원 사업(71%·95개교)이 꼽혔다. 등록금과 관

련해선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8%(135개교)에 달했다.

대학 총장들은 현재 정부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와 관련해 무려 98.6%(136개교)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답은 1.4%(2개교)에 불과했다. 올해 고특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 수준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에 대해선 자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답이 77.5%(107개교)로 가장 높았다.

'지자체장 선거와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대한 우려도 61.6%(85개교) 있었다. 라이즈는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일부 권한을 시도로 위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정복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1차 고교학점제 설명회 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은 11일 초·중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1차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1차 고교학점제 설명회는 초·중 교사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과정전문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고교학점제의 정책 이해와 진로학업설계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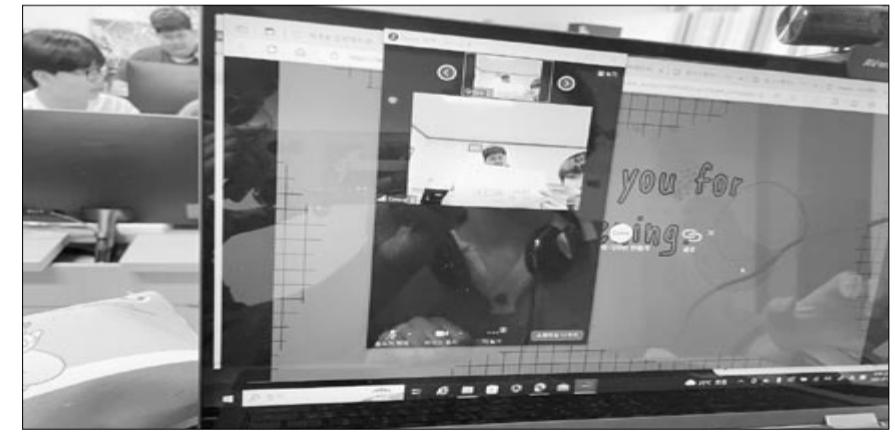
**서천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원사업 정보나눔 자리 운영**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관) 학부모지원센터는 12일 관내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지원사업(학부모회 학교참여, 학부모 학습공동체) 정보나눔자리를 개최했다.



**당진 면천중학교,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당진 면천중학교는 지난 4월 2~3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캠페인 '다독다독'을 운영했다. 면천중학교는 당진시립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캠페인 '다독다독'을 신청해 순현주 작가님이 직접 '부모의 꿈이 아닌 나만의 꿈을 찾자'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금산동초 '쉼표하나(cafe)'에서 교육공동체가 바리스타 체험을 해요** 금산동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재능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금산동초 '쉼표하나(cafe)'를 활용한 다양한 바리스타체험을 실시했다.



**2023년 온라인 영어 국제교류 수업** 청양화성중학교(교장 오귀현)는 지난 11일, 일본 히로시마현 Takano Junior High School과 온라인 생방송형 교류 수업(온라인 심쿵! 만남')을 진행했다.



**충남도교육청 국제교류 '2023다우리 꿈길성장캠프' 종간 성과보고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원(원장 김연화)은 지난 11일, 2023 다우리 꿈길성장캠프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남서울대학교, 한서대학교, 중부대학교 운영단지와 종간 성과보고회를 실시했다.

### 부여도서관 '여름아, 읽자!'

#### 흥미진진 독서 여행

부여교육지원청 부여도서관(관장 오규연)은 오는 7월 17일부터 2023년 여름 독서교실에 참여할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함께 '여름아, 읽자!'라는 슬로건 아래 1·2학년 대상 ▶교과서 속 그림책과 3·4학년 대상 ▶교과서 속 역사와 예술 등 2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또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자신감 빚지 꾸미기, 소원 향로 만들기, 금제관 장식 만들기 등 주제와 관련된 독후활동을 진행하고 참여 학생들에게는 독서노트와 배지를 증정한다.

모든 수업은 무료이자 대면으로 진행되며, 평생교육정보시스템 www.cnall.or.kr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도서관(041-835-2509)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부여=김성구기자

#### 재능과 꿈이 함께하고 미래를 밝히는 모두의 직업 교육 축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정부세종창사체육관에서 '제4회 꿈꾸세(종) 직업 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꿈꾸세(종) 직업 교육 축제는 세종시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11개 공공기관, 2개 기업(▲비전세미콘 ▲하이모스), 2개 대학(▲고려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3개 직업계고(▲세종미래고 ▲세종여고 ▲세종영성고)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재능과 꿈이 함께하고 미래를 밝히는 모두의 직업 교육 축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2023년 학과 재구조화로 새롭게 변모하는 세종미래고의 베이커리카페, 코스메디컬과, 로보ット로닉스과, 스마트기계과의 학과 체험과 세종여고의 경영사무과, e-비즈니스과, 세종장영실고의 IT콘텐츠과, 보건간호과, 뷰티미용과, 외식조리과의 교육 내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입학에 대한 상담도 제공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산·관·학 협력 기관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엔비티아이(MBTI) 검사를 제공하며, 10조 캐리커처, Robot Service 테라리움 제작, 그립톡 만들기, 화장품 제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시간제 근무를 하는 청소년, 현장 실습 및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 진학을 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들

에게 근로 권리와 위한 공인노무사 법률상담과 노동 인권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진로를 위한 다양한 혜택 및 정책 안내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별히 세계 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자 심천용 졸업생의 설탕공예 공연, 기능경기대회 메이크업 명장 공연과 직업계고 학생 및 교사 밴드 공연 등도 준비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을 목전에 둔 중등학생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학과와 전공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향후 '제4회 꿈꾸세(종) 직업 교육 전공 축제'의 운영 성과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세종 직업 교육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태선기자

### 충남교육청, 충남형 늘봄시범학교 '해봄학교' 선정절차 '돌입'

#### 도내 100교内外 선정·추진 예정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가 공모한 2023년 하반기 '늘봄학교' 사례를

별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충남형 늘봄시범학교 '해봄학교'의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해봄학교'는 지역기반 중심의 충남형 늘봄시범학교로 올해 100교内外를 선정할 예정이며,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의 무상 강좌를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1+1 강좌 ▲지역대학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체육·방과후학교 ▲에듀테크 활용 혼합수업 방과후학교 ▲지역 진로체험처 연계 상상'을

봄교실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통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선정 학교에 ▲지역 및 대학과 연계한 늘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및 질적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서는 11일 도내 늘봄시범학교 선정을 희망하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늘봄시범학교 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추진했다.

김정환기자

### 아산교육지원청, 2023 제2회 수업 이야기 자리 열어

아산교육지원청(이경범 교육장)은 지난 11일, 관내 초·중·고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교사들의 수업 연구와 실천 사례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수업 이야기 자리였다.

이날 수업 이야기 자리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주제로 디랬다.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교 오서현 수석선생님이 발제를 맡았고, 배방고등학교 서유리 선생님과 혁신중학교 한리나 선생님이 토론을 이어갔다.

오서현 수석선생님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산교육지원청은 현장 교사들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업 연구와 실

천 사례를 공유하는 배움자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범 교육장은 "현장 교사들의 프로젝트 수업 연구와 실천 사례를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라며 "수업 이야기 자리로 계속 이어 가자"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2023 한국테크노링 TBR 테스트 드라이빙 데이' 행사 성료

#### 한국타이어 TBR 딜러 대상 트럭·버스용 타이어 행사 진행



한국타이어 어엔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가 지난 11일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Hankook Technorring)'에서 한국타이어 TBR(Truck Bus Radial, 트럭·버스용 타이어) 딜러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한국테크노링 TBR 테스트 드라이

빙 데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타이어의 혁신 TBR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딜러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내 교제용 TBR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회사의 포지셔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기획됐다.

먼저, 한국타이어는 오전 세션을 통해 최종 테스트 베드인 '한국테크노링' 시설 전반에 대한 투어를 진행했다. 더불어 상용차 및 TBR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인사이트를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타이어의 최상위 TBR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병배기자

# 푸른하늘 만들기 캘리그라피 공모전 열려

道, '우리가 꿈꾸는 충남의 푸른하늘' 주제…다음달 11일까지 접수

충남도는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유엔(UN)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제2회 충남도 푸른하늘 만들기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푸른 하늘, 맑은 공기의

소중함과 푸른 하늘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운동을 확산·전파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충남의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을 꿈꾸는 전 국민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화선지 1/4절(350×700mm) 규격에 맞는 작품과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둥봉해 다음달 11일까지 도 대기환경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

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입선 등 총 46개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다음달 중도 누리집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한전원자력연료 브라질 INB사  
원자력연료 핵심부품 수출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최의수)는 브라질 원자력연료 회사인 INB사에 올해 12월까지 수출 약 225만 불(한화 약 29억 원) 상당의 원자력연료 지지격자 등을 수출할 예정으로, INB사는 2020년 12월에 체결한 수출 계약(미화 약 1050만 불, 한화 약 137억 원)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지격자는 우리나라가 장입된 연료봉을 일정한 간격과 힘으로 고정·지지하면서 원자로에서 냉각재로의 열전달을 향상시키는 원자력연료의 핵심부품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06년 6월 브라질 INB사와 최초로 핵연료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INB사가 제조하는 표준형 핵연료의 지지격자 및 소형부품류(연료봉 스프링 및 슬리브) 수출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2022년까지 누적 매출액은 약 180억 원 규모이다.

아울러 한전원자력연료는 현재 동사와 2024~2025년 핵심부품 추가 공급에 대한 계약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장기 공급을 위한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이번 수출 사업을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협력 중소기업과 기술 및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 서산시귀농귀촌협회 재능기부로 지역민과 화합도모

서산6쪽마늘 이용한 마늘고추장, 장아찌 120세트 만들어 다문화가정 전달



충남 서산시는 지난 11일 서산시귀농 귀촌협회에서 서산6쪽마늘을 이용한 마

늘고추장과 장아찌를 120세트 만들어 다문화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협회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실에서 서산시귀농귀촌협회 회원 약 20명은 함께 서산의 대표 특산물인 서산6쪽마늘을 이용해 고추장과 장아찌를 만들고 이후 서산시가족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120세트의 마늘고추장과 장아찌는 서산시가족센터를 통해 관내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형식 서산시귀농귀촌협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활동을 많이 펼쳐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에 설립된 서산시귀농귀촌협회는 3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 “화재 트라우마 극복은 김천치유의숲에서”

김천치유의숲·한국타이어, 화재 극복 주민 대상 산림치유프로그램 제공



국립김천치유의숲과 한국타이어가 공동 주관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주민 대상 화재 트라우마 극복캠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제공됐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 소속기관인 국립 김천치유의숲(센터장 박한진)이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주)이하

한국타이어)와 공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주민 180여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안정을 위한 산림치유캠프(평일형, 속박형)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작나무숲에서 시각적 피로감 해소와 심신 안정 도모를 위한 숲산책을 비롯해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증진을 위한 소도구테라피, 산림치유 인자를 통해 면역력을 증진하는 맨발걷기 숲트레킹, 자작나무숲에서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헤(mutex) 프로그램 등이다.

이 사업은 국가재난이나 화재 관련 대상자들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산림청 복권기금(녹색자금) 숲체험교육사업과 한국타이어의 지원으로 기획됐다.

박한진 김천치유의숲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과 지진 등 국가재난 기여자를 위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한밭대 지역협력센터 베트남 국가창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밭대 산학협력 노하우 전수·지역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 지역협력센터는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국가창업지원센터(이하 NSCC)와 창업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기술사업화 노하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경제 발전 경험 고유사업

연방강화 전략 수립'의 연구책임자인 한밭대 지역협력센터장 서준석 교수와 양 기관 대표로 참여했고, 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와 베트남 과학기술부, NSCC 관계자 등도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을 함께 기원했다.

NSCC는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2019년에 설립한 최초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베트남 창업생태계 구축 및 기술사업화를 맡아 범국가적인 창업 행사인 TechFest 운영 및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창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기업 유치 및 자국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밭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베트남 과학단지 내 대학, 연구소 등에 그간 쌓아온 산학협력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역의 초기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밭대학교는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파나마, 중국 등 해외 기관들과의 산학협력 교류를 확대하며 재학생의 글로벌 인턴십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 당진시 한마음공원 물놀이장 개장

도심 속 시원한 놀이터 14일부터 개장

당진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한여름을 맞아오는 14일부터 도심 속 균린공원인 한마음공원에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당진시 읍내동 위치한 한마음공원의 야외 물놀이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무더위에 친한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는 무료로 운영 시간은 작년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매주 화요일은 휴장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매시간 '45분 운영, 15분 휴식'으로 운영되며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몰려 혼잡할

경우에는 일부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더위로 물놀이장을 찾는 방문객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용수칙을 준수해 모두에게 폐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는 동안 2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용수교체, 염소 소독, 검사기관을 통한 주기적 수질 검사 의뢰 등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고맛나루장터' 최대 40% 할인 특별 이벤트

충청남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농사랑 '공주시의 날 기획전' 마련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공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쇼핑몰인 '고맛나루장터'에서 시원한 헤택이 기득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벤트 기간 모든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고맛나루쌀, 공주밤, 양념갈비, 밤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고맛나루장터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맛나루장터(www.gmjangter.com) 회원은 가입 마일리지 5,000점, 구매 마일리지 3%가 부여된다.

고객 만족도 조사와 상품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달 베스트 후기 작성자 1명, 우수 후기작성자 10명을 선별해 각 1만원, 5천원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 중이다.

한편, 충청남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농사랑(www.nongsarang.co.kr)에서도 7월 12일부터 '공주시의 날 기획전'을 마련해 공주시 농특산물을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오찬근 농식품유통과장은 "공주시 생산자라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고맛나루장터'는 판매 수수료가 없고 상품 판매 상담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별 할인 기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예산군 응봉면 다섯째 아기가 태어났어요

지역사회 관심과 축하 이어져

예산군 응봉면은 농촌 고령화로 아기 출생소리를 듣기 어려운 가운데 면내에서 보기도든 다섯째 아기가 태어나 주민의 관심과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응봉면에 거주하는 장성희(52)·강미선(44) 부부는 지난 2002년 첫째를 출산하고 넷째를 낳은지 17년 만인 올해 6월 9일, 막내인 다섯째를 출산하면서 2남 3녀의 자녀를 두게 됐다는 설명이다.

예산=박재희기자

## 동정

## 아산형통



박경규 아산시장  
=13일 16시 30분  
아산시 영면면 신  
화1리 마을회관  
에서 열리는 아산  
형통에 참석.

## 추진상황 보고회



오성환 당진시장  
=13일 오전 10시  
청내 접견실에서  
당진항만관광공  
사 명칭변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를 주재, 오후 2시 청내 소회의실에  
서 2023년 주요 업무 및 공약사항 추  
진상황 보고회(3일 차)를 주재.

## 발대식



가세로 태안군수  
=13일 오후 3시  
태안노인복지관  
에서 열리는 '서부  
공감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발대  
식'에 참석.

## 방한1리·2리 방문



김돈곤 청양군수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마을봉  
사의 날 행사가  
열리는 비봉면 방  
한1리와 2리를 차  
례로 방문.



## 청양군 응급상황 인명구조 교육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1일, 민  
원인 접촉 기회가 가장 많은 민원봉사실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을 진행  
했다.

군은 이날 청양소방서 구조구급팀 죄  
지해 단장을 초빙, 심폐소생술을 실습하  
면서 신속한 구호 방법을 익혔으며, 청사  
내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익  
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용법을 배웠다.

김종용 민원봉사실장은 "오늘 교육과  
실습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원  
들의 인명구조 능력을 높이게 되었다"라  
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인의  
생명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제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인민의 노하우

##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원대로 28-20 대전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http://www.daejeontoday.com)

## 탄소중립도시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 우/리/동/네



## 당진시, 4개 기업과 함께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총력



당진시가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발전소 등 대규모 대기오염배출사  
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탄소중립 실  
현과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당진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강  
화로 인해 현대제철의 굽뚝지동측  
정기기(TMS) 설치 굽뚝 개소수가  
2021년 24개소에서 2022년에 72  
개소로 증가하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기존 5.378톤에서 10412  
톤으로 늘어나 대기오염에 대한 경  
각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오염 감축을 통한 2045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포집  
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수소생  
산시설, 탄소포집·자원시설, 저

장·부대시설 설치 등) ▲탄소중  
립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줄이  
기 실천운동 ▲공공부문 탄소 지  
원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삼선산 수목원, 당산생태공  
원 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0일 탄소중립지  
원센터를 지정했으며 7월 11일에  
는 현대제철, 한국동서발전 당진발  
전본부(주) GS E&S(주), LG화학 등  
4개 기업과 함께 당진시 탄소중립

도시 지정을 위한 충남도 주관 컨  
설팅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국고지  
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는 탄소중  
립도시 지정을 위해 녹색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에너지 및 사업 공정  
페리디엄전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친환경 생산시설로의 조기  
전환 등 사업장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 에너지 전환 모델  
개발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웨  
이스트샵을 각각 오는 8월, 10월 개  
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태안군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44억 원 지원

## 신속민원처리과 정례브리핑 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의지 밝혀

위한 것으로 주택개량(80동), 빙집  
정비(65동), 슬레이트 처리(254동)  
등이 추진된다.

올해 12억 9700만 원의 사업비  
가 투입되며, 움자대출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제외하  
고 상반기에 이미 빙집정비 사업  
71%, 슬레이트 처리 63%를 완료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6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  
로, 단지 내 가로수 정비와 옥상·  
외벽 방수, CCTV·경로당·주민  
운동시설 설치 등이 해당된다.

올해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으  
로 총 32개 공동주택단지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오는 10월  
원료를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사업  
이 추진 중이다.

'주거 저소득·취약계층 및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주거 약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으로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와 취약계층 주거환  
경 개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군은 올해 상반기 6400만 원을  
들여 차상위계층이 고령자 및 농  
어촌 주거장애인 12가구에 지붕보  
수와 도배·장판 등 주택 개·보수  
를 실시했으며, 주거가 불안정한 저  
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  
여 수급자 1608가구에 올해 말까지  
총 23억 7800만 원의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가구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4

가구에 3년간 연 1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은 현재 39세  
이하로 규정된 신청 연령 조항의  
삭제를 검토하는 등 청년층의 안정  
적 주거 여건 조성에 적극 힘쓴다  
는 방침이다.

끝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  
화 사업'은 입주민 공동체의 화합  
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올  
해 4개 단지에 화단 가꾸기와 중고  
물품 나눔장터 등 소통·화합 프로  
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하고 소  
규모 공동주택 설계도면을 제공하  
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  
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주거여건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나서 '군민 모두  
가 잘 사는 태안' 건설에 앞장서겠  
다는 각오다.

태안=김정한기자

## 청양군 집중호우기 농경지 농작물 철저 관리 당부

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한 후  
벼 줄기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을  
제거해야 한다.

물을 뺀 녹은 깨끗한 물 걸러대  
기를 하고 흰밀마름병, 도열병, 벼  
멸구 등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콩이나 감자, 고구마 등 밭작물  
의 경우 배수로를 30cm 이상 깊게  
파고 물 빠짐과 통기성을 확보하고  
병해충, 침수해, 습해 등을 예방한다.

노지 고추는 줄 지주나 개별 지  
주를 보강해 쓰리짐을 방지하고 수  
확기된 과채류는 서둘러 수확한  
다.

불어난 빗물로 논이 물에 잠겼을  
때는 벼잎 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

로 북돋우기 작업을 해 쓰리짐을  
막는다.

또 비가 그친 뒤 병에 걸렸거나  
상처를 입은 개체는 서둘러 제거하  
고 무릎병, 돌립병, 타저병, 겸은무  
느병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방제에 나서야 한다.

과수원은 배수로 정비에 집중하  
고 풀과 함께 과수를 키우는 초생  
재배 과원은 풀을 베어 물 빠짐을  
줄이어야 한다.

많은 비로 과수원에 물이 쌓였다면  
열매와 잎, 줄기 등을 살펴 흙영금  
을 씻어주고 떨어진 괴설이나 흙  
들어온 흙을 서둘러 치운다.

비 온 뒤 과수에서 발생하기 쉬

운 겉무늬썩음병, 겉무늬썩음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과수를 꼼꼼히  
살피고 방제를 위한 약제를 준비해  
두었다 필요할 때 즉시 방제해야  
한다.

죽사에서는 내부로 물이 들어오  
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  
다.

죽사 내 전기시설 쪽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가죽며  
이는 건조한 곳으로 옮기거나 비에  
젖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용한 농기계는 겉에 묻은 흙이  
나 잔재물을 없애고 기름칠을 한  
뒤 바람이 잘 통하고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두고 덮개를 씌운다.

이때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  
립 상태로 두는 것이 좋다.

청양=정상범기자

## 태안군 '2023년도 제2차 숨은 자원 찾기' 돌입

11~19일 중 6일간 8개 읍·면서 실시·11일 남면서 첫 행사 열려



찾기 행사에 돌입했다.

군은 11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6일에 걸쳐 8개 읍·면에서 숨  
은 자원 찾기 행사를 갖기로 하고

는 재활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민간단체 주도로 주민들  
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순  
환의식을 확산시켜 쓰레기 불법투  
기와 예방하는 등 변화하는 지역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실시된 '제1차 숨  
은 자원 찾기' 행사를 통해 폐비닐  
119톤, 농약병 26톤, 재활용품 134  
톤을 찾아내고 570톤의 쓰레기도  
함께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행사를 추진에도 종력을 기울여  
청정 태안 이미지 조성에 적극 나  
서겠다는 각오다.

한편, '2023년 제2차 숨은 자원 찾기'  
는 11일 남면과 12일 안면읍·고  
남면에 이어 ▲14일 소원면 ▲17일  
태안읍 ▲18일 원북면·이원면 ▲  
19일 균亨면 순으로 진행된다.

태안=김정한기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 당진시, 9월까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기초자료 확보

당진시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오는 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재건축·이전·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로 관내에는 1,501개소가 있다.

총 12명의 조사요원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매개 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내부 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  
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안내 시설(접지블록, 유도 및 안  
내설비) ▲기타 시설(객실, 관람석, 작업대) 등의 편의시설을 점검  
한다.

당진시는 편의시설 설치가 미비하거나 훼손된 곳에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하게 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  
해 전국에서 공통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요원이 대상 시  
설을 방문했을 때 시설주 및 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향  
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민원 등대 직원 보호를 위한 전문가 특강 아산시는 지난 11일,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등대 직원 보호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인 금문화 변호사는 특별민원 예방 및 사후 대응 방안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의하였다.

우리/동/네

# 제21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서막 올리다

오는 13일 열려… 천만송이 연꽃화원과 한 여름밤 빛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 논산시 '글로벌 도전이 시작된다'

세계Atlas포 추진전략 모색… 제안서 평가위원회 열려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지난 11일 논산세계Atlas포 추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백성현 시장은 '논산Atlas포 세계화'를 향해 가며 대대적 국제행사를 열겠다는 의지를 품고 논산세계Atlas포 추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논산시는Atlas포 개최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의 뼈대를 갖추고자 '논산세계Atlas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개최 여건을 면밀히 따지는 동시에Atlas포 사례들을 분석하며 추진전략을 고도화해 2027년에 '논산세계Atlas포'의 개막 측면을 쏘아 올리겠다는 목표다.

최근 광고를 띄워 용역사를 공모했으며 각계 전문가의 평가·검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8월 중 용역에着手해 내년 1분기 안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백성현 시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담대한 도전 정신과 그에 상응하는 치밀한 연구, 채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세계Atlas포라는 새로운 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전략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우량 기업체 329억 투자유치 성사

서천군,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 다할 계획

서천군이 지난 1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호 충청남도 지사와 김기웅 서천군수 김정우(주)아이비미디어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충청남도 8개 시·군과 15개 기업이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로, 협약기업인 (주)아이비미디어리얼즈는 2026년까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하 장항국가산단) 내 6만 5987㎡ 산업용지에 총 329억 원 규모의 설비를 투자하고, 79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 투자협약 기업인 (주)아이비미디어리얼즈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업체로, 장항국가산단의 우수한 공장용지, 저렴한 분양가, 물류 접근 용이성 등을 깊이 고려해 신설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웅 군수는 "투자협약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마무리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항국가산단 산업용지는 150만㎡(45만평)로 현재 1단계 산업용지의 98%가 분양 완료됐으며, 군은 올해 1단계 산업용지 분양 완료 및 2단계 산업용지의 조기 조성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청정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서천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안전성 검사

서천군이 12일 흥원위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과 함께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위판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군 공무원, 서천군부수협 최종환 조합장 및 임직원들은 서면 흥원위판장을 방문해 어선에서 조업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과정과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검사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생산단계부터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추진됐다.

군은 대표 위판장 4개소(장항, 송석, 흥원, 미량)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방사능 기기를 각 수협에 지원할 예정이다.



서 관광객과의 즐거운 토크와 신청곡 접수 등으로 관람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연꽃정원 라디오 방송국"은 눈여겨볼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 밖에도 궁남지와 부여 시가지 일원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인 "궁남지 RPG-서동선화 탐험대" 그리고 서동선화 복장, 캐릭터 등을 착용하고, 퍼포먼스와 즉석 이벤트를 펼쳐 깜짝 재미를 선사할 "헬컴 투 미래방죽(궁남지의 옛 이름)"이 준비돼 있다.

7월 장마철과 무더위에 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무더위 쉼터(쿨링존)과 그늘막을 확충하고 우천시를 대비하여 수상무대와 객석에 대형 천막(TFS)을 설치하고 행사장 곳곳에 비가림시설 및 배수로를 정리하여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또한, 무료셔틀버스와 셔틀택시를 운영하고 시내 주변 연계 주차장을 통해 행사장 주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해 시가지 상권까지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어 더욱 알차게 부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박정현 군수는 "7월 천만송이 연꽃향기로 가득한 궁남지에서 펼쳐지는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부여서동연꽃축제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주제거리로 기족, 연인, 친구들과 이를 담고 행복한 여름날의 추억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롯해 인기 트로트 가수 나태주 등이 출연하는 전통 트로트 무대를 선보일 "오늘은 궁남지 트롯", 실력파 여가수 헤이즈 등의 가수가 출연하여 가요 #12539; 팝페라 #12539; 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는 "Faling in 연꽃정원"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 등 풍성한 공연이 마련돼 있다.

또한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4종의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관람객에게 호응이 좋은 체험프로그램으로 카누를 타고 궁남지 연지 속을 탐험하는 카누체험은 기족과 연인과 함께 연지 사이로 카누를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하는 힐링의 공연무대도 이어진다. 힙합, 아이돌, 맨스 등 2030세대 취향 콘서트 "2030 궁남지 열린 콘서트"를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현장에

## 서천군-서울시 양천구와 동반자적 우호 협력 관계 '다짐'

### 우호 교류 협약식 통해 다양한 분야 협력하기로 약속

서천군과 서울시 양천구가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군은 12일 서울시 양천구청 3층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김기웅 서천군수와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양천구

간 우호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 또한, 9월에는 축제 명절 양천구 청에서 열리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가해 서천군의 대표 특산품인 쌀·김·멸치·소과주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서천군 민의 날 등의 행사에 양천구민을 초청하여 교류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군은 2022년 12월 재경군민회 행사 및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활동차 양천구청에 첫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한산도시문화제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 오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호협력 관계에서 자매결연으로 교류 관계를 격상시킬 복안을 갖고 있다.

김 군수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진정한 자매결연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희망한다"며, "양 지역의 뛰어난 자원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도농 협력의 새로운 미래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천구는 서울시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남의 서남부에 있는 서천군과 같은 내 천(川)지를 쓰는 등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천=김태선기자

## 기회발전특구 유치 준비 '박차'

### 부여군, 기회발전 특구 유치 위한 관련공무원 특강 실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 정책의 일환인 '기회발전특구' 유치 준비에 나섰다.

지난 12일 서동브리핑실에서는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국장, 부서장 등 실무부서 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받기 위해 서는 지역에 투자하는 앵커기업 및 기업투자에 따른 각종 인허가 규제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서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투자하는 앵커기업 및 기업투자에 따른 각종 인허가 규제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우리 군은 매년 1천여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



고 있다"며 "특히 청년, 중장년층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여군은 기업이 투자하기 매우 열악한 환경인데 이

를 극복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 충청남도 특구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우 시장은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민 놀뫼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리며, 지원해 주신 성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8 대동빌딩 1층

## 계룡시 놀뫼새마을금고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전달 받아



계룡시(시장 이은우)는 지난 11일 놀뫼새마을금고(이사장 조인상)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해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성금 기탁은 계룡시와 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상 이사장은 "이번에 기탁한 성금이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동정

업무협약



이응우 계룡시장= 13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계룡안 보생태팀방로 업무 협약 체결.

개막식



박정현 부여군수= 13일 오후 8시 궁남지 주무대에서 열리는 서동연꽃축제 개막식에 참석.

보안장비 협력회의



김기웅 서천군수= 13일 오전 9시 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천군 나눔의 회원연수회에 참석, 오전 10시 30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충남 수신인 한마음대회에 참석,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장항국가산단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 오후 2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3 보안장비 협력회의에 참석.

계룡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모집

계룡시(시장 이은우)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하반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심리·행동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전문가의 판단으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바우처 신규이용자, 고연령, 저소득 가구 순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단서(혹은 소견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에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뇌졸관찰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통합재활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 총 5개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계룡시정기분 재산세 33억 4천만 원 부과

계룡시(시장 이은우)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물분) 1만 5470건, 33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8231;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액비율을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납부제도인 웹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부자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부과 관련 세무과 부과팀(042-840-2762)에 문의하면 된다.

## 정

## 계룡회 회의



최원철 공주시장= 13일 오후 2시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리는 계룡회 회의에 참석.

## 자원순환 협력사업 협약식



김동일 보령시장 = 13일 오전 10시 대천항 소형선박계류장에서 해양 침체폐기물 수거 및 자원순환 협력 사업 협약식 참석, 오후 2시 보령머드 테마파크에서 2023 PD전국대회 참석, 오후 4시 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제183회 만세보령아카데미 참석.

## 평생학습관 마을학교 개강식



이완섭 서산시장= 13일 오전 9시 30분 서산시 평생교육관에서 열리는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관 마을학교 개강식 참석, 오후 2시 50분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참석.

## 찾아가는 희망콘서트



박병인 금산군수= 13일 오후 2시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희망콘서트에 참석.

##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서비스인기

## 보령시보건소

보령시보건소가 지난 6월 말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손목 활동량계 등 스마트기기를 제공한 이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건강 모니터링, 건강상담 등을 진행한다.

올해 사업에는 허약·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70명이 참여했다. 스마트폰이 없는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화면형 인공지능스피커를 제공했다.

또한 보건소는 사전 우울증 검사에서 위험군으로 판정된 어르신에게 주 2회 모니터링과 안부전화 등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 활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강 임무도 부여해 어르신 고독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매일 악 먹기, 걸기, 물 자주 마시기 등 건강 임무를 하다 보니 건강 습관이 몸에 배는 것 같아 너무 좋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강현자 건강증진과장은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어르신들이 스마트기를 잘 활용하고 계신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역량 강화교육

## 금산군, 응급처치·치매 교육·직업윤리 등 강의 진행

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금산다락원 생활의집 소공연장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수행인력 9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급산소방사-응급처치 및 화재예방 △충남도광역치매센터·치매교육 △한국능률인재개발원-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등

## 서산시, 국민체육센터 내



충남 서산시는 지난 10일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성연작은도서관’을 본

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성연작은도서관은 성연면 3로 182-26 서산

## 성연작은도서관 본격 운영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1층에 조성됐다.

시는 총사업비 3억 2천 7백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2800㎡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기존인연면과 동문동 일원의 공립작은도서관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성연작은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공휴일과 월요일은 휴무다.

개관 장소로 약 6천 2백 권의 책이 준비돼 있으며, 시는 매월과 분기별로 신간 도서를 구입해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다.

이 외에도 이용자들은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시립도서관에 소장된 책을 성연작은도서관에서도 받아 볼수 있다.

시는 성연작은도서관이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성연면 테크노밸리에 특화된 독서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연작은도서관은 “성연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성연작은도서관이 개관했으나, 시민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며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 남일면 평생학습센터 시니어 스마트폰 동아리 호응

남일면 평생학습센터의 시니어 스마트폰 동아리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개설된 이 동아리는 마을 주민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 시대의 일상생활을 돋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연령이 평균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농사로 바쁜 시기에는 밤에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대학과정과 연계해 참여자들이 직접 활용한 사진에 시를 지어 액자로 제작하고 남일면행정

여, 생활교육 등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6월 기준 금산군 독거노인 6152명 중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는 1454명으로 전체 독거노인 대비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분들의 노고 덕분에 돌봄의 공백이 줄어들 수 있었다”며 “군에서도 어르신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따뜻한 돌봄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복지센터 및 금산군립도서관 등 순회 전시도 진행해 평생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배움 욕구를 해소하고 소통의장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고 있다”며 “평생학습의 꽃인 동아리 운영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 우/리/동/네

## 2023 희망마을 선행사업 호응

서산시, 주민들 협동심 강화·공동체 활성화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는 ‘2023년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주민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충남도와 서산시가 함께 마을 리더와 주민들의 사업 역량을 높이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대산읍 대로2리 ▲지곡면 장현1리 ▲성연면 예덕1리 ▲운산면 고풍리·갈산1리 등 5개 마을은 지난해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진행했다.

마을별 사업으로 ▲마을경관개선(고풍리, 갈산1리) ▲소득사업 기반 마련(대로2리) ▲주민 복지와 문화장려1리, 예덕1리 사업 등이 추진됐다.

주민 주도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협동심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들이 스스로 미를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완료된 마을은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서산시 마을대학 심화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2024년 충남형 마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사업 역량을 강화했다”며 “이번 사업을 토대로 다음 단계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 공주시 신풍면 경로당 순회 방문

공주시 신풍면(면장 정연만)은 관내 경로당 30곳을 순회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관리를 당부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3일 신풍면장으로 부임한 정연만 면장은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취임 인사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특히, 장마와 폭염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는 경로당 시설을 꼼꼼히 확인한 뒤 폭염시 안전 행동수칙 등을 안내했다.

정연만 면장은 “무더운 여름에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공주시 금학동 새마을회

## 훈훈한 이웃 사랑 물품 나눔

공주시 금학동 새마을회(회장 김용식, 부녀회장 국명숙)는 지난 11일 관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새마을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나눔행사는 관내 봉정동 일원 휴경지 뒷밭에서 그동안 정성들여 재배한 감자와 감자 판매 수익금으로 달걀, 쌀국수 등을 구입해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여 가구에 전달했다.

김용식 새마을회장과 국명숙 부녀회장은 “이번 감자 캐기와 물품 나눔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월동 금학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자 수확과 나눔에 애써주신 새마을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순천향대, 전국 15곳 중 대전·세종·충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

##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앞서 적극적 소통 행보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지난 20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전국 15곳 중 대전·세종·충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오는 10월 본지정 평가를 앞두고 지자체와 대학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5년 동안 1천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예비지정된 15개의 대학은 10월 초까지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와 협력해 만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순천향대는 학생이 무슨 학과 또는 학부를 선택하는 기준의 임시 전형을 폐기하고, 어떤 학제와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학생들의 평가 선택권이 구현되는 '학생 설계형 대학 교육 구축'을 이번 혁신기획서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순천향대는 제출한 혁신기획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일 충청남도와 함께 글로컬대학 지산학아니셔티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킥오프 워크숍을 가졌다. 충남도는 순천향대의 본지정 평가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순천향대 김춘순 연구산학부 총장, 윤성환 기획처장, 충청남도 김기

영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충남도는 △산학협력 기반 지역혁신 충남 공유 캠퍼스 조성 △충남형 글로벌 레지デン스 칼리지 구축 △충남도 대내 지금 확보 등 지속적인 지·산·학 일체형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아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순천향대의 혁신 방향에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대내적인 학사 구조 개편 등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 도출 및 소통 여부도 중요하다.

순천향대는 지난 10월부터 이를간 10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소속된 교원을 중심으로 '글로컬대학30 대학 구성원 간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윤성환 기획처장은 4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예비지정에 제출한 혁신기획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질의응답에서 ▲실행계획의 적정성

판단 ▲지역 사회 연계 특화모델의 구체화 ▲수요자 관점의 대학 혁신 ▲학제와 교육 과정 혁신의 발전 방향 ▲변화되는 임시 전형에 대한 제언 ▲소전공 운영에 대한 학교의 제도 등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승우 총장은 "우리 대학은 앞서 제출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 착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이번 소통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행 계획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주 대학에서 지·산·학 실무 회의 통해 글로컬대학30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밭대 SW중심대학사업단(주유클리드소프트) 업무협약 체결**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사업단은 지난 10일 교내 대회의실에서 주유클리드소프트와 기술 공동 개발 및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재대 IPP사업단 일학습병행 기업현장훈련 워크숍** 배재대 IPP 사업단(당장 김창수)은 내달 'IPP형 일학습병행 기업현장훈련(OJT) 워크숍'을 대상으로 학생(학습근로자)과 기업 전담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12일 진행했다.

## 서산시 해미면, 해미교 재가설 공사 우회 임시도로 개통



서산시 해미면 해미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도로가 개통

되어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해미교는 지난 6월부터 교량 노후화정밀 안전진단 "D등급"으로 인해 재가설 공사(2024. 6. 완공예정)가 시작되었으며 차량운행 및 도보 이동이 전면 통제 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해미교를 운행하던 차량들이 주변 도로를 우회 운행하게 되어 인근 도로가 막히고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 했다.

특히 해미소방서 앞 도로는 도로 폭이 좁고 교행운행이 불가하여 양쪽으로 차량 진입 시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위급상황에

소방차의 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 왔다.

이번 임시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소방차 긴급출동 및 인근 도로 교통 혼잡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들은 "해미교 재가설 공사 기간 동안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번 임시도로 개통되어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해미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 감사함을 전했다.

서산=김성현기자

## 세종충남대병원, 제5차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폐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지역민 건강증진

세종충남대병원(원장 신현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96.9점을 획득해 최고 수준인 1등급을 받았다고 7월 12일(수) 밝혔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251곳, 병원 125곳 등 424개 병원과 이상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증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체방률 ▲객담배양 검사 체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



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 총 6개 지표로 평가됐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 폐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가래, 기침, 호흡곤란, 발열, 오한 등의 증상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폐렴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폐로감, 두통, 설사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알려진 폐렴균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지만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폐렴구균이 외에도 9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균을 확인해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김태선기자

## 조폐공사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총력

개인정보보호 관리중요성 전파, 지역사회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등 대상강연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 www.komsco.com)가 12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섰다.

조폐공사는 최근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사의 사업영역은 화폐, 여권, 신분증 등 '실물경제' 중심에서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결제 플랫폼 '착(chak)', 전자서명 등 '디지털 경제' 중심의 사업으로 확장해 가며 개인정보보호는 필수 불가결한 일 이었다.

공사는 '개인정보보호의 첫걸음은 임직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보안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지난 해 CEO주관 '개인정보 보호 실천 다짐대회'를 통해 ▲직접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처리과정의 투명성 ▲외부 해킹 방지 ▲플랫폼 보안관리 철저 ▲정보보안 최우선 가치라는 5가지 정보보호 핵심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부서와 소속 기관들은 실천과제를 선정

하고 꾸준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법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주간 캠페인'도 동참한다.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으로 정하고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Privacy matters, Protect it)'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 홈페이지, SNS, 사내망 등에 홍보 포스터 게시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방법 및 안전조치 여부 점검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확인 ▲개인정보 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점검 ▲고유식별정보 보유 실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조폐공사는 내부 직원 중 개인정보 다량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실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대전지역 공공기관, 창업기업, 협력업체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취급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송병매기자



공주시, 여름방학 다양한 전시·

체험·강연 독서프로그램 운영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어린이들의 창의력 증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웅진도서관은 체험형 독후활동인 ▲ 그림책 테라피(초등 1~3학년),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드는 ▲똑똑 공예(초등 3~6학년), 호기심이 많은 유아들을 위한 ▲도판도란 그림책 놀이터(6~7세 유아)를 진행한다.

또한,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 창의력 속 3D펜 그리고 ▲'나와 티라노와 크리스마스' 원화 전시 등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공주기적의도서관은 책놀이 활동인 ▲당동댕 책놀이(유아 6~7세), 우리 그림책 읽자!(유아 및 초등),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 창의력 쑥쑥 보드게임(초등 1~3학년)을 운영한다. 이밖에 ▲'내 손은 금손' 미술체험 활동 ▲'오리 부리 이야기' 활동에 작가와의 만남(초등 1~2학년) ▲도서관장공연 '미법의 정원'(5세 이상)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손편지 공모(초등 1~6학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복한동행' 나들이 운영**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앞둔 지난 11일, 아산 관내 초등학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천안 소재 접평몬스터에 방문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 한마당 행복한동행 나들이(이하 나들이)를 운영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대전형 셀테드 방향제시**

## 셀테드(CPTED) 공동 학술 세미나

대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한국셀테드학회(회장 이동희)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 셀테드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용근 대전경찰청장, 설동호 교육감, 조원희 대전시의회부의장,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셀테드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대표 등이 함께 했다.

특히 한밭대학교 등 대학 경찰학교 학생, 범죄예방 분야 교수·연구원, 대전시청·대전경찰청 관계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 셀테드 업무와 관련된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제1세션은 과학기술을 접목한 '청소년 비행 예방 AI CCTV의 효과적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한밭대학교 최동길 교수의 발제와 친안정책연구소 권도희 박사,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김연수 교수와 대전교통공사 이인영 팀장, 세종경찰청 홍성표 생활안전제작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인공지능(AI)과 시뮬레이션 기술(IOT)을 접목한 대전형 과학치안 셀테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박사의 '대전형 셀테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제와 친안정책연구소 강용길 박사, 한남대 이도선 교수, 미국 서든일리노이대 조수정 교수, 충남도립대 괴영길 교수, 대전중부경찰서 CPO 박정민 경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전 셀테드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토론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디자인 개선 등 대전형 셀테드가 나아갈 방향을 제언했다.

이정복기자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농기주부모임 당진시연합회 삼계탕 나눔 행사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지부장 전철수)와 (사)농기주부모임 당진시연합회는 지난 12일, 오성환 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이종숙 농협 충남·세종본부장, 백남성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당진 관내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미와 무더위로 고생하는 관내 취약농가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도시락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대덕구 지역팀방현장 체험 Hidden, 회덕의 보물찾기 성료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 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팀방현장 체험 클래스 'Hidden, 회덕의 보물찾기'를 운영했다.



순천향대, 몽골서 함께 해외봉사활동 펼쳐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지난 달 28일부터 10일간 몽골 몽골비타르 외곽 빙민 지역에 2023학년도 하계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지역사회 봉사와 함께 다채로운 교육, 문화 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당진시자원봉사센터, 교통안전문화 확산 위한 워크숍 실시 당진시는 당진시자원봉사센터가 지역 교통문화 지수를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통문화 선진지(강원도 원주시와 충북 청주시) 견학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산청년회, 온양 1·4동 저소득 독거노인 삼계탕 후원 이산청년회(회장 김기정)가 지난 11일,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을 위해 온양 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권태식)에 삼계탕 50인분과 라면을 온양 4동 행복키움추진단 단장 우재원에게 삼계탕 50인분을 후원했다.



"즐거운 안전교실이 학교로 찾아갑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안전수련원(원장 박필용)은 12일부터 14일까지 서산 서령초등학교, 흥성공업고등학교, 보령중학교 총 3개교에서 151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홍 작가가 만난 그 사람의 향기> 김국향 원장

# "스0벅스보다 맛난 커피 정말 좋아요!"

얼마 전 대전시 대덕구 법동 종리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서 「발달장애인 자활프로그램 - 바리스타 편 - 카페, 동네사람들」이 펼쳐졌다.

<김국향 Korea 전통음식 연구원> 원장이자 한국 전통 음식 조리 명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김국향님께서 특강을 맡은 이날의 프로그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 + 웃음을 만발 + 행복기ード도 모자라 "스0벅스보다 맛난 커피 정말 좋아요!"라는 칭찬과 찬사가 만발한 또 다른 축제였다.

비가 훌뿌리는 날씨였지만 이날의 슬로건인 '카페, 동네 사람들'에 부합되게 연신 입장하는 법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문전 성시(門前市) 성원 덕분에 김국향 원장님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늦도록 연신 커피와 기타 음료를 내리고 만드느라 수고가 기증되었다.

이곳을 찾은 지역의 기관장과 손님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차



를 주문하였는데 이날 김국향님과 협업한 빌립장애인들은 손님이 요청한 다음의 차를 척척 만들어 내 걸림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메리카노를 비롯하여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녹차라떼, 초코라떼는 물론이고 카라멜 마끼아또와 자몽에이드, 레몬에이드와 요거트스무디, 땅기요거트스무트까지 척척 만들어져 나오는 솜씨에 칭찬이 쪽쪽 했다.

이날 뜻 깊은 행사를 진두지휘한 김국향 원장님은 고용노동부

평가를 받고 있다.

전통 외식에서부터 조리 실무, 식품위생, 한식, 양식을 선보이고 있는가 하면 제과 제빵 메뉴 개발, 외식 창업 컨설팅, 전통 한식, 황태, 콩나물탕과 굽전을 활용한 창의적인 전통음식 개발 등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차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녹차와 밤효자리를 이용한 차 음식 개발에도 병행하며 연구를 하는가 하면 미래에 봉사를 실천할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평소 언제나 밝은 미소와 깍듯한 인사, 멋진 의상과 출중한 매너를 보고 김국향 원장님의 성함을 비유하여 '국가의 향기'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봤다. 성명 김국향에서 '국'과 '향'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인지 싶다. 평소 봉사도 잘하시는 김국향 원장님은 분명 향기까지 아름다운 분이었다.

홍경석기자



황원체 대전현충원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국가보훈부 황원체 국립대전현충원장(가운데)과 직원들이 13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황원체 원장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대회용품 사용을 늘려 미래 세대가 깨끗한 지구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부고 ▲ 고안나(본지 전국필진 칼럼위원)씨 부친상, 고재상목사별세 = 경남 마산 의료원 장례식장 2층 20호, 발인 : 7월 13일 8시 30분 장지 : 마산 화장시설 진전면 선영

## 종이팩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 '기후 위기 대응 실천'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삼환어린이집 · 아이편한어린이집



천안녹색소비자연대(대표 장민수)는 7월 5일 직선 삼환어린이집, 성환 아이편한어린이집과 종이팩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종이팩 수거, 자원순환 교육, 환경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함께 하기로 했다.

삼환어린이집(원장 박해정) · 아이편한어린이집(원장 김유신) 어린이는 연중 종이팩 수거 캠페인에 참여한다. 수거된 종이팩은 천안녹색소비자연대가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각 어린이집 원명으로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 전량 기부한다. 이후 센

터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종이팩은 팔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대부분 일반 쓰레기나 폐지와 섞여 배출된다. 유아기부터 자원활용의 가치를 알고 자원 낭비를 막는 것이 본 사업의 골자이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일 두 개 기관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종이팩 · 멀균팩 분리배출까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가정과 연계한 환경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이 함께 자원을 순환하고 녹색소비를 실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밤 9시에 소동에도 참여한다.

천안=이정복기자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공주시 반포면에서 의료봉사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지난 11일, 공주시 반포면

에서 지역민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은 이날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상담, 관절 통증 질환 진료 등 지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료와 치료를 해 호응을 얻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민을 위해

소형버스 1대와 승합차 1대를 운영, 이동 편의를 도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 재개된 이번 의료봉사에 주민들은 입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성남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 '대전 특성화고 안전지식경진대회' 개최

대전고용노동청 ·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13일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 체육관에서 대전 관내 안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10개교 재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회 '대전 특성화고 안전지식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안전일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폴리텍IV대학이 장소를 제공하고, 대전시에서 시장상을 후원하는

등 '대전세종 안전문화 실천주간' 관련 기관들도 함께한다.

대회는 대전시교육감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인삿말을 시작해 '도전 골든벨'과 같이 문제를 출제 하면 학생들이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산업안전분야 및 생활안전, 학교안전 등을 주제로 객관식 · 주관식 문제를 풀이하며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최종 26명에게는 대전시장상, 대전시교육감상, 안전보건공단이 사장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상, 충도일보사장상 등과 부상이 수여된다.

송병배기자

## 서산재경우회, 삼계탕으로 화합 다져

서산재향경우회(회장 송낙인)는 초복을 맞아 시내 음식점에서 정기 종회를 겸한 건강한 여름나기 복다림 행사를 개최 안전한 지역사회의 베트남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정나눔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서산재향경우회는 10일 초복을 맞아 경우회원 및 원로회원 90여명과 이완섭 서산시장, 양운교 경찰서장, 지역의원, 경찰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서산=김정현기자

## 칼럼



이재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현황홍보  
위원

올해도 7월의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기운의 풍요를 위해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다. 고추는 주렁주렁 열려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올고추 농사는 일단 풍년이다. 참깨와 콩이 꽃을 피우고 열매가 더덕더덕 엄청날려 크고 있다.

요즘 참깨밭에는 수많은 꿀벌들이 이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과수밭

에서는 옥수수와 참외, 수박이 익어 가고 있다. 장마가 그치면 노지과 일들이 익어 우리 가족들의 맛있는 여름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요즘 밭에는 상추와 치커리, 쑥갓 등 쌈채소와 가지, 오이, 호박 등 먹거리들이 풍부하다. 대략 30가지의 작물들이 크고 있다. 장보러 가지 않아도 먹을 것이 지천이다. 이것이 시골의 맛이다. 소서와 대서의 절기가 있고 조복과 중복이 있는 이 더위에 시원한 무엇이 없을까?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수능과 킬러문항일 것이다. 대학입시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와 가정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입시에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

이제 7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9월 모의고사까지 끝나면 본격적인 대입시가 시작된다. 우선 8~90%의 학생들이 수시로 진학하기 때문에 수능으로 대입시를 판가름 하는 학생들은 10%내외 인데 소위 킬러문

그 이유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야하는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인 킬러문제는 학생들이 수능점수에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적당히 어려운 문항인 준 킬러문제는 시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킬러문제는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렵고 필요 이상의 난이도를 높인다는데 문제다.

이주 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특별한 사교육을 받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 문제가 대학입시에는 결정적일 수 있지만 그 학생의 인생의 성공에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 특혜의 문제인 킬러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교육자들이 지원을 모아 정의를 실현하기 원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병학과 휴가로 인해 현찰자 수가 줄어들고 그 결과 혈액수급이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올 여름엔 많은 의식있는 시민

그리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대학입학으로 인생이 좌우되서는 안 되며 노력의 결과에 따라 삶의 질이 변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자손들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 본인들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대학에 가고 사회에 진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그렇게 큰 일을 내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다. 그만큼 자발적인 후천적 노력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기울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현신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을 보아온 것 이 나만의 경험을 아닐 것이다. 킬러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교육자들이 지원을 모아 정의를 실현하기 원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병학과 휴가로 인해 현찰자 수가 줄어들고 그 결과 혈액수급이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올 여름엔 많은 의식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기고



김종복 논설위원

긋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아궁이에 옷을 맡았으니 갈아 입으세요.”

“허어 – 이런 -- 고마울 수가 …!”

며칠 후, 그 날은 장날이 아니라 일찍 주막문을 닫으려 하는데, 웬 장정이 들어왔다. 주모는 비깥 나들이를 나갔고 시동 혼자 있었다.

“너, 나하고 어디 좀 가야 쓰겠다.”

장정이 사동의 손을 잡아 끌었다. 말은 달려 어느 기와집 앞에 멈췄다. 사동은 대문 안 사랑방으로 갔다. 유건을 쓴 대주 어른이 빙긋이 웃으며 사동의 두 손을 잡았다.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어? 그날 밤 비를 맞고…?”

“그래, 그렇다. 내가 어머님 묘소에 갔다가 갑자기 푸우를 만나, 허인은 낭떠러지기에 떨어져 죽고 나 혼자 길을 잊고 해매고 있었다. 여우고개 아래 너희 주막에서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원래 여우고개 아래 주막은 사동네 것이었다. 그런데 2년 전, 7년간 누워 있던 사동의 아버지가 이승을 하직하였으나 악값으로 그간 쌓인 빚 때문에 주막은 저자거리 고리채 영감에게 넘어갔다. 며칠 후 나루터 옆에 목수들이 모였다.

“똑딱 똑딱 --”

드디어 널찍한 기와집 주막이 완공됐다. 대주어른은 완공식 날 땅 문서와 집 문서를 열두 살 사동 손에 쥐어 주었다. 이 시연이 바로 적선지가 퀘유어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다.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 자손이 어느 날 잘되는 것은 부모님이나 오랫동 선조가 쌓은 덕적선행(德積善行)의 인과설이다. 반면 자식이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짓고 나쁜 사람으로 되는 일은 그 부모 또는 선조가 지은 죄에 따라 쌓은 태로얻고, 지은 태로 받는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 홍경석의 사뿐사뿐 사자성어



홍경석  
기자 · 대전중구 문인협회 / <두 번은  
아파봐야 인생이다> 저자

몇 해 전 직장에서 퇴직했다. 그 렇지만 벌어놓은 건 고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재물이 소진되어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설상가상 보증을 선 사람에게서 도 배신당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끌 뚜기장수(재산이나 밀친 땅위를 모두 없애고 어렵게 사는 사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상황에 부닥쳤다.

나이가 쳤다는 이유로 재취업도 힘들어 아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지체에서 공공근로를 시작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공공근로조차 일자리를 잡기가 힘들었다.

고군분투 끝에 올 7월부터 하루에 4시간짜리 일을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 이미 저녁까지 하며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 물론 나이가 있다 보니 퇴근하면 피로가 쓰나미로 다가온다.

굳이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 이야기’를 동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도 짧았을 적엔 그야말로 조선 후기 화가인 김후신의 『통음 대쾌도』 그림처럼 두주불사(斗酒不辭)의 낌이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술은 한 방울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대낮부터 통쾌하게 대취(大醉)한 선비를 그리고 있다. 금주령이 매우 엄격했던 영조 시대였을 진대 감히 어멍까지

여기면서 폭음을 했다면 이는 분명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다.

하지만 같은 주당으로써 충분히 그림의 주인공을 이해할 수 있는 까닭은 명징하다. 오죽이나 속이 답답했으면 벌건 대낮부터 술에 만취가 되었으랴.

추측하건대 그는 팔년풍진(八年風塵)의 담담증에 괴로워하던 중 미침맞게 지인들이 찾아와 술을 사니 실컷 마셨을 것이다.

‘팔년풍진’은 옛날 중국 초(楚)나라의 항우(項羽)와 한(漢)나라의 유방(劉邦)이 싸운 초한전쟁(楚漢戰爭)에서 비롯된 한자성어(漢字成語)다. 유방이 8년을 고생한 끝에 항우를 멸한 데서 유래한다.

그러나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팔년풍진’과 비슷한 사자성어에 만고 풍설(萬古風雪)이 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많은 고생’이란 뜻이다. 마치 나를 비유한 듯하여

더욱 애착이 간다.

그동안 다섯 권이나 되는 저서를 출간했음에도 빛을 보기는커녕 여전히 무명소졸(無名小卒)로 은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철전필도(七顛八倒), 일곱 번 구르고 여덟 번 거꾸러진다는 뜻으로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거나 매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의 군락한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때론 분개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럴 때는 나도 하는 수 없이 『통음대쾌도』의 사내와 같이 술을 마시고 오늘의 고로움을 일시적이나마 레테(망각)의 강에 추서 넣고 싶은 충동이 꺼벙이(영성하게 생긴 사람)의 우둔함으로 유혹하곤 한다.

팔년풍진의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픈 마음이 간절한 것은 당연지사다. ‘어떤 일이고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필시종(事必始終)도 있듯.

**비의 연가**

불빛 속 저녁 비는  
너를 향한 그리운 눈물  
고된 하루의 무게가  
촤르르 빛물에 풀리면  
물살을 가르며 달려가는 마음  
비가 내린다 맹렬히

두 주먹 빛물은  
이제 막 헤어져야 할  
누군가의 서러움일지도 모른다  
비위가 남기고 간 아둠의 끝으로  
첼로의 구슬픈 기락 걸리고  
처벽처벽 면발자국 소리  
내 겉으로 스며들고 있네

## 시의 향기



이정숙 시인의 ‘시향기’

## 비의 연가

비가 내린다 하루 종일  
비람이 휘젓는 공중은  
시간을 잊은 듯 허물어지며  
흠뻑 젖은 나뭇가지의  
적막한 그림자 걸려 있네

## ▶ 시작 노트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저녁이 있다. 비가 내리고 바람 부는 날에는 더욱 따뜻한 온기가 있고 활하게 불 밝힌 집이 그리운 것이다. 비가 오면 유난히 상념에 젖기도 한다. 아련해서 더 또렷이 살아나는 지난 일들, 가지런히 내리는 빛줄기를 바라보면 어느새 옛 기억 속에 서성이는 내가 있음을 본다. 누군가 그랬다. 비 오는 날은 떠난 사람이 빛 소리로 오는 것 같다고. 내게 밤비가 그랬다. 지금은 안성맞춤 내리는 비가 좋지만 예전에는 어떤 모양의 비가 내리든 몸의 신호에 따라 걷기도, 눕기도 하면서 비에 젖는 시간이 길었다. 요즘은 비를 좋아하는 문우를 만나 커다란 통장을 단 카페에서 피카타임을 갖는 것이 이제 취미처럼 소소한 즐거움이 되고 있다.

## 시의 향기



김성식 시인의 ‘그리움의 강가에서’

삶  
살아가는 게 어디  
동그란 그리듯 그리 쉬우라?  
살다 보면  
▶ 시작 메모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근엄하며 더 중요한 무엇이다. 역사가 말해 주는 것은 독특한 것들이지만, 시가 말해 주는 것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희노애락 감싸쥐며  
변민하며 내쳐 걸어가는 것

그리 려니  
저리 려니  
그렇 저렇 살아가는 것이라네  
살아가는 게 어디  
동그란 그리듯 그리 쉬우라?

## ▶ 시작 노트

색과 향이 어우러진 진초록의 향연, 이름다운 살꽃들, 이 미친 듯한 열기, 이 미친 듯한 웃음, 이 산발적인 구애, 이 발작적인 환희. 이 고백 멈추는 일 없고, 이 노래의 음결코 떨어지지 않으리. 꿈꾸는 듯한 사랑은 가라, 신록의 계절 7월이면 우리 모두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 중기중앙회, 혁신성장 가로막는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은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0%가 ‘기술혁신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의 69.2%가 최근 3년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적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최근 3년간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88.0%), ‘정보통신업’(79.2%) 등의 순이다.

현재 구상하거나 개발중인 기술(또는 제품)을 보

유한 기업은 전체 57.9%로 나타났다.

매출액별로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74.5%가 ‘구상하거나 개발 중인 기술(또는 제품)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0억원 이하인 기업에서는 51.9%만이 신기술·제품을 구상하거나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구상 중인 기술의 기술성숙도 단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단계가 70.2%, 사업화 단계가 30.7%, 시장화 단계가 21.2%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자금 지원(69.5%),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인정 요건 완화(37.6%), △검사 생산을 위한 설비나 장비 지원(33.9%)이 있었다.

송병배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등록번호 : 대전기 00017      인쇄처 : 동일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대전투데이

16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대전투데이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DAEJEONNEWS

후 원 |

한국기계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Daejeon SEACLEAN Company Ltd.  
대생리클린 주식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http://www.vktech.co.kr)

(주) 제이콘  
JCON

충청환경에너지(주)

주식회사 레일웍스  
CONSTRUCTION & MAINTENANCE

INSGREEN 주식회사 인스그린

More than Chemistry  
 SK텔레콤

당진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주식회사 애동씨엔에이